

|| 다시 마주한 여름 ||

미츠야 타카시 X 아키바 유이

다시 마주한 여름

꽃가에 달라붙은 듯, 매미 우는 소리가 주위를 시끄럽게 쏘다니던 어느 여름 날이었다. 언제나와 같던 유이는 서툰 솜씨로 만든 요리를 도시락통 안에 차곡차곡 담아 넣은 뒤 집 밖을 나섰고, 익숙한 길가와 골목길을 건너서는 드디어 미츠야의 집 앞으로 도착했다. 이렇게 지낸 지도 얼마나 되었는지 이제는 좀처럼 감이 잡히질 않았다. 약해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면 거짓이었겠으나 자신이 약해진다면 결국 모든 게 끝나버릴지도 몰랐으므로. 유이는 주먹에 힘을 준 뒤 ‘음!’하고 짧게 읊은 뒤 적막한 문에 손등을 가져다 대어 푹푹 노크했고, 그가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벌컥 열리는 루나와 마나가 그의 품으로 달려 나왔다.

“언니!”

혹여라도 목소리가 너무 클까 봐 작게 외친 둘은 유이의 좌우로 달려 나가

안겼으며, 유이는 무릎을 굽혀 앉아 그런 둘을 토닥여준 뒤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미츠야가 방에서 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던 차에 처음엔 꽤 어수선하고 엉망이었던 거실의 분위기는 유이가 간간히 방문하여 청소하는 탓에 다시 원래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꼭 닫힌 미츠야의 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이는 도시락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음식들을 루나와 마나에게 나누어 주었다. 맛있어? 하고 물으면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둘이었으나 사실은 제 음식보다 미츠야의 음식을 더욱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유이는 금세 눈가가 시큰거렸다. 약해지면 안 돼. 그 생각으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으나 이 공간엔 미츠야의 향이 너무 가득했으니. 잠깐 욕실 좀 빌리겠다며 그 안으로 들어선 유이는 등을 벽에 기대는 채 그대로 스르륵 미끄러져 앉았다. 그리운 향기가 제 목을 조르는 기분이 들었다.

‘하아…….’

호흡을 되찾기 위해 유이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욕실 바로 옆은 미츠야의 방이었던 지라 이곳에 올 때면 혹여라도 그의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가만히 기다려봤으나, 당연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따금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악 소리와 함께 종이 뭉텅이가 벽면으로 통통 집어 던져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풍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유이는 바깥은 여름인데 미츠야는 아직 겨울에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다. 드라켄과 했던 약속의 그 날이 여전히 미츠야의 눈가에 아른거리는 듯싶었는데, 유이는 언젠가 미츠야가 다시 괜찮아질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떠올렸다. 약해지면 안 돼. 지금은 내가 제일 힘 내야 할 시기니까. 유이는 제 뺨을 세게 두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욕실 밖으로 나섰다. 유이가 그 집에서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설 때까지, 여전히 미츠야

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 버린 건 예상일이 아니었다. 드라켄의 죽음 이후, 어쩌면 미츠야의 시간은 그와의 약속을 나누던 그 시간대에 멈춰 있었을지 모르니까.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분명했으나, 그게 그를 점차 좀먹어 가는 길이라면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유이의 마음은 여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한시라도 빨리 그가 기운을 차리길 바라던 유이는 어쩌면 대회 날이 가까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랐다. 그날이 되어서 미츠야가 그토록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된다면, 결국 목표가 달성됨으로 다시금 예전의 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었기 때문이다.

“아, 도시락통을 두고 왔네?”

한참 제집으로 향하던 유이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중에 미츠야네 집에 도시락통을 두고 왔단 사실을 깨달았고, 이 핑계로 한 번 더 들러볼까 생각한 그가 발걸음을 돌려 걸으니 그 앞에서 타케미치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미츠야를 부르는 게 보였다. 다들 걱정돼서 와준 걸까. 유이는 조심히 그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는데, 부름에 등 떠밀리듯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미츠야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확인하게 되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왜소해진 모습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좀처럼 떠날 줄을 몰랐다. 혹여라도 제소리가 들릴까 봐 벽에 몸을 숨긴 채 숨죽여 울던 유이는 필히 미츠야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으리라 확신했고, 그런 그의 생각과 달리, 타케미치를 따라가던 미츠야는 저 멀리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의식하곤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유이의 가방이 담 너머로 살짝 빠져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

그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나 유이가 힘든 걸 본인보다도 더 빨리 알아챘던 미츠야였던 지라 지금도 유이가 홀로 울고 있으리란 걸 알 수밖에 없었지만, 그 눈물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쉬이 닦으려 뛰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주먹에 힘을 불끈 쥐게 되었다. 지금 자신은 대체 무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드라켄이 원했던 제 모습인가를 곱씹던 미츠야는 타케미치와 이야기를 나누며 무언가를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으니. 그로부터 며칠이 흘러 일본 복식 문화 신인 대회 전날, 그는 유이에게 메시지 한 통을 남기게 되었다.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받은 유이는 펍 그다운 연락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다. 예전의 그 역시 귀찮다는 핑계로 메시지 대신 전화를 선호했으며, 이따금 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선 정확하게 용건만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곤 했기 때문이다. 간략히 적힌 그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유이는 항상 헤실헤실 웃곤 했는데, 지금 다시 그의 메시지를 받고 나니 유이는 제 안에서 감정이 벽차오르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당연히 만날 수 있다며 답장을 보내고 나니 미츠야에게선 장소가 적힌 메시지가 금방 도착했다. 그 역시도 유이의 답장을 기다린 듯 보였다.

‘아, 이럴 게 아니라 서두르자!’

감동에 젖을 게 아니라 서둘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유이는 핸드폰과 지갑만 덜렁 챙겨 들고는 바깥으로 나섰으며 그대로 미츠야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빠르게 내디더가는 걸음걸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미츠야를 만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곳은 데이트를 끝낸 뒤 자주 이야기 나누던 공원이었다. 시간이 늦은 탓에 공원은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금방 공원에 도착한 유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저 앞에 미츠야로 보이는 인물 하나가 보였다. 정말 있어……. 유이가 단전까지 끌어올린 호흡으로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니 미츠야는 폭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려 유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해 달려와 주는 유이의 모습이 비쳤고, 유이의 눈에는 자신을 기다려준 미츠야가 고스란히 들어찼다. 미츠야는 이전에 몰래 훑쳐봤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소 그가 보여줬던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 더욱더 강하게 보인 건 넘긴 머리칼 위로 자리한 용 문신과 특공복이었다. 훨씬 자유로워 보이는 게, 마치 자신이 알던 예전의 그 미츠야가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다.

“미츠, 야…….”

그간 참아보려 했던 것이 무색하게, 유이는 미츠야의 품에 와락 안긴 채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더없이 많았다. 루나와 마나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미츠야가 모르는 사이 제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있고 유쾌한 농담거리라거나 그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가벼운 뉴스거리들도 모두 들려주고 싶었다. 여전히 그의 시간이 겨울에 멈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미츠야를 만나고 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데다가 오직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들이닥친 머릿속이 번잡하게 어지러워져서 유이는 미츠야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미츠야는 그런 유이를 끌어안아 토닥여주었다.

“유이, 그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미츠야가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에 너무 예전과 같아서, 그 다정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아 오히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순간을 몇 번이나 꿈속에서 그려왔기 때문이었으니. 유이는 미츠야의 존재를 확실히하려는 듯 그의 옷깃을 더욱더 세게 붙잡았으며 미츠야도 눈가가 시큰해지는 걸 느끼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신 뒤 유이를 세게 안았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끌어안은 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간신히 진정된 유이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미츠야는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은 얼마 전에 타케미치가 찾아왔어. 그 녀석, 마이키랑 싸우러 가겠다고라고. 진짜 멍청한 녀석이야.”

미츠야는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레 웃었다. 그 웃음이 꼭 예전의 그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되잖아? 그 마이키랑 싸우겠다고니.”

“.....”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던 게 타케밋치더라고. 그리고 그 옆엔 늘 드라켄이 있었고.”

유이는 미츠야의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포렷하게 알게 되었다. 미츠야에게 또 다른 꿈이 생긴 것이었다. 지금 미츠야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유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려다보니 그는 유이의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슬프게 웃었다. 미츠야가 오래간만에 보여준, 유이만을 향한 웃음이었다.

“가려는 거지?”

“응. 드라켄을 대신해서 같이 가려고.그래서 말인데.”

미츠야는 뒷말을 살짝 망설이는 듯싶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유이에게 꺼내는 게 꽤 미안한 얼굴이기도 했는데. 지금 미츠야를 붙잡는 게 드라켄도, 대회도 아닌 자신이었다면 유이는 그가 기꺼이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를 바랐다. 미츠야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신은 항시 그의 곁에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이는 살짝 떨리던 미츠야의 주먹을 감싸 잡아주었고, 그 온기를 느끼던 미츠야는 제 손을 잡아준 유이의 손에 깍지를 낀 채 잡고는 그 위에 짧게 입을 맞췄다. 여전히 그의 눈가엔 슬픔이 아른거렸으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유이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해. 오랜만에 만나놓고, 이런 말밖에 못 해줘서 미안.”

이 말을 읊던 미츠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는 사실은 아마 유이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미츠야가 유이를 잘 알듯이 유이도 미츠야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이런 선택을 하리란 걸 아예 모르지도 않았던 유이는 깍지 낀 손 위로 자신도 함께 입을 맞춘 뒤 배시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전히 눈가와 코끝이 발갛게 된 상태에서 눈물도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미츠야의 슬픔을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난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미츠야!”

“유이…….”

“당연히 빠질 수 없지! 기다릴 테니까 돌아오면 엄청 맛있는 거 해줘야 해? 미츠야가 해준 요리가 너무 먹고 싶더라구.”

유이의 말에 미츠야는 잠시 그를 가만 바라보고는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유이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은 채 고맙다는 말을 건넸으니, 유이는 미츠야의 등을 다독여주며 그 품 안에 꼭 안겨 있었다.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이 온기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함께 약속을 건넌 이 순간의 모든 기억을 서로의 모든 감각에 순간을 각인시켰으니. 영원히 겨울일 것만 같았던 미츠야의 시간이 다시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 위로 뜨거운 여름밤 냄새가 풍겼다.

소중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츠야는 그날의 온기를 통해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